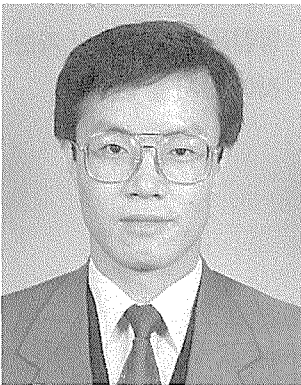


# UR시대를 맞이하여 석유산업의 대응과 과제는

## I. 머리말



황 윤 상  
<유공 업무부 업무2과장>

작년말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깊은 우려를 뒤로 하고 국제적인 조류에 동승하여야만 우리 국민, 우리경제가 국제미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입지조건상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국제교역 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과실의 향유에 의한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적 인식과 함께 정부는 쌀을 개방하게 되었다.

쌀 개방정책 표방에 뒤따라, 금년초부터 언론지상에 용단폭격 같이 거론되기 시작한 대외개방, 자유화의 불가피로 이에 대한 국민 총체적인 대응방향으로서의 국제경쟁력 배양에 현 정부정책의 제일 목표를 두겠다는 대통령의 의지표명이 있었다. 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비로소 물길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배의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헤쳐 나아가야 할 급류와 도사리고 있을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다.

우리 석유산업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대외개방, 자유화라고 하는 시대상황적 용어가 회자되어 왔으나, 어찌면 여태까지는 석유정책당국도 그렇고 정유업계를 포함한 석유업계도 이에 대한 의미를 절실하게 느끼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의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왔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은 단지 필자 혼자만의 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쟁까지 개방된 현실에서 우리 석유산업만에 대한 규제와 보호 논리는 대내외 어느 계층으로부터도 공감대를 얻어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석유정책 수립당국으로서는 외국자본의 국내 석유시장에의 자유로운 진퇴를 전제로 한 석유산업의 관리 정책방향 수립 및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 대한 양질·저가의 석유안정공급이라는 정책서비스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석유업계로서도 국내석유시장에 대하여 이제는 내부의 경쟁자 뿐만 아니라 보다 강한 외부의 경쟁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경영전략을 수립해 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엄청난 상황변수의 개입을 앞에 두고, 우리 석유정책 수립당국과 석유업계는 구체화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위 엄청난 변화에의 대응을 저해하는 실타래 같은 문제점을 정리하고 나아가 발전적인 방향을 공동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석유산업에 비록 길지 않은 기간 종사한 필자로서 부족하나마 석유업계가 대응하고 변화해 가야 할 방향과 이에 대한 석유정책 수립당국에 요망사항을 간청해 보고자 한다.

## II. 석유업계의 대응 방향

먼저 정유업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과제들의 해결에 보다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국내석유의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한 공급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질유분해/탈황시설등 시설고도화에 대한 투자를 지체됨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시켜 가야할 것이다. 현재, 정유업계는 국내 수요구조의 경질화와 사용연료의 청정화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질유 분해시설 및 탈황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상기 투자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투자자금 소요에 따르는 자금조달의 어려움, 투자경제성에 대한 불확실감 등 정유업계의 적극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는 많이 있으나, 투자시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어쩌면 영구히 투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리 정유업계가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외국석유자본에 대한 경쟁력을 영원히 갖출 수 없을지도 모르는 암울한 상황을 상상시, 가능한 한 조속히 투자계획을 이행하고 투자비용을 조속히 회수함으로써 외국의 고도화 시설을 갖춘 석유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장시설 및 석유류제품 공급 네트워크의 정비·확충 등 물류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 정유업계가 그래도 국내석유산업에의 진입을 기대하고 있는 외국자본에 비하여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물류분야이기 때문이다. 즉, 전국의 각 수

**외국자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유업계는  
주유소업계와  
합심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가깝게 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석유유통업계도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자체적  
경쟁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유업계와도  
협력체제를 굳혀  
나가야 할 것이다.**

요지에 균형있게 석유제품 저장탱크를 확충하고, 공장, 저유소, 소비자와의 물류 네트워크를 '95년에 완공될 남북송유관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물류효율화를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 뿐만 아니라 석유류 소비자에 대한 납기 등 서비스 제공 능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세째,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계열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유업계가 직접 석유유통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나, 투자자원의 한계라는 내적인 한계와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 또는 정부의 기업집중에 대한 각종 규제와 같은 외적인 한계로 인하여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존의 유통업계와 정유업계가 구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석유류 유통업계 즉, 대리점업계 및 주유소업계는 정유업계에게는 중요한 고객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이들은 현재와 같은 정유업계와의 느슨한 관계하에서는 경제적 메리트만 있다면 외국자본에게로 쉽게 돌아서 버릴 수 있는 흔들리는 고객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93년말 주유소 허가제도 완화에 따른 정유업계간 주유소 확보경쟁으로 인하여 주유소업계와 정유업계의 갈등과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빠른 시일내에 관계가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정유업계와 유통업계, 특히 정유업계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상호간의 아무런 신뢰의 구축도 없는 거래조건만의 이야 기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정유업계가 진실로 주유소업계의 경영상황을 걱정하고, 정유업계가 가지고 있는 보다 우수한 경영자원을 주유소업계 경영개선에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과 관심을 체계화해둠으로써 정유업계는 주유소 업계를 우호적으로 계열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주유소업계도 정유업계와 동일한 배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국내 정유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개선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자본과 국내 석유자본과의 경쟁에서 승부를 판정하는 주체는 결국 우리 소비자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유업계는 주유소업계와 합심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보다 좋은 품질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환경개선사업 또는 지역문화 창달사업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개발 등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 업계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와같은 현안 과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대외개방이라는 공통의 과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업

계는 기존의 혹은 현재와 같은 업계간 경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유업계간 경쟁은 상호발전적인 경쟁이라기 보다는 상호파괴적이며 상호소모적인 경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정부의 현행 유가관리제도 및 이익관리방식에 깊이 연유하는 바가 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모한 시장확대경쟁, 규모 확대 경쟁, 상호 배타적 이익확보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발전적일 수 있는 경영관리방식의 개선,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한 기술개발경쟁 등 質的 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계가 공동으로 관련학계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과제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토록 하는 등 공동협조체제를 유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가 같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업계간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리점업체 또는 주유소업체등 석유유통업체로서는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자체적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유업체와도 협력체계를 굳혀 나가야 할 것이다.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간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I. 석유행정정책수립에의 제언 및 끝말

대외개방이라는 엄청난 위력의 환경변화를 앞두고 업계로서도 충분한 대응능력배양 등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나, 여태까지 석유산업을 관리해 온 정부로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업계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에너지, 석유행정은 앞으로도 계속 존속·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변화를 양질·저가의 에너지·석유 안정공급이라는 대국민적 행정서비스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회 요인으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외국자본 및 국내자본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와질 국내 석유산업 구조 변화속에서 에너지 석유수급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틀의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틀속에서 국내 석유업체가 짧은 기간동안에 자체 대응력을 제고하여 국내 석유안정공급주체로서 계속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업계의 발빠른 대응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정책화하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쌀 개방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 및 정부와 우리 국민의 대응 형태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死後藥方文적 대응에 대한 실망과 우리 국민의 안이 했음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 석유산업에 대해서는 똑같은 실망과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면서 줄고를 끝내고자 한다. ♪

**에너지·석유행정은  
앞으로도 계속  
존속·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변화를  
양질·저가의  
에너지  
안정공급이라는  
대국민적  
행정서비스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